

에너지 자립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전주시, 28억2900만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추진 212개소에 생산시설 들어서 연간 전력 1308MWh 생산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8억 2900만원을 투입,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총 21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층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원을 동시에 설치하거나 특정지역의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에 1층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팔복동과 동산동, 조촌동, 덕진동 일대 주택 196개소와 공공·민간건물 16개소를 포함한 총 212개소에 연간전력 1,308MWh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884kW △태양열 383㎡ △지열 87.5kW 등의 설비가 갖춰지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연간전력생산량은 단독주택 312가구가 1년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20년생 소나무 10만7,422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펼쳐온 지역에너지 계획인 '에너지 디자인 3040'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지역에너지 계획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구성하고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을 전주시의회 의장, 임정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공무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주거복지 컨트롤타워 '문 활짝'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

주거문제 상담 등 전문창구 역할

주거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상담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을 전주시의회 의장, 임정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공무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센터는 주거복지 상담과 정책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주거상담·정보제공 서비스 △민·관 지원연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교육·홍보사업 △주거복지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특히, 센터는 현장중심의 주거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과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

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주거정책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LH 전북지역본부와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단위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협력해 민·관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시 현안사업 추진 현장 방문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전주시의원)는 지난 19일 2018회계연도의 전주시 현안사업 추진 현황을 방문, 사업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까지 전주시가 산지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36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민성동 소재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 선별출하 시설 등을 둘러보고 전주시농협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그간의 성과와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중인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 사업결과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의 애로 사항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는 등 검사 활동을 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며, "지식산업센터가 영세기업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주시가 중소기업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활용해 올해 해외바이어 개별 초청지원사업과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사업 등 4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중 항공료와 숙박료의 70%

를 최대 1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지원되며 숙박료의 경우 전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역 숙박시설에 묵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 모집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시는 매일 말일까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은 후 익월 15일까지 선정해 통보한다. /송효철 기자

만성질환자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북대병원서 뇌사 40대 남성 장기기증

전북대병원 환자 중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지난 17일 뇌사판정을 받은 박모(남성, 40대) 씨가 심장과 폐, 신장 2개, 각각 2개를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의 가족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온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유족은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 씨가 기증한 심장, 폐, 신장(2개) 각각(2개)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선정된 6명의 환자에게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 운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가 지난 18일 '전주모래내시장'을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성과 공익활동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주민들을 서로 연결, 지방세, 국세 등 세무 전반에 걸쳐 상담하는 제도로 현재 2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생업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세금 고민을 덜어 주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완산, 덕진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와 전화로 우선 문의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중학생 2명, 타 학교 후배 폭행

중학생 2명이 다른 학교 후배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전 1시경 전주시 내 한 공원에서 다른 중학교 학생 B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군 등은 이날 오후 4시경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에서 B군 등 4명을 상대로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안 B군 등의 학부모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군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부안서 배터리 방전

표류중인 선박 구조돼

전북 부안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중인 선박이 구조됐다.

이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는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점검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A호(8t 연안통발, 승선원 4명)가 부안 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배터리가 방전돼 표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해 방전된 어선을 구조했다. A호는 배터리 충전 뒤, 이상없이 지역 항해했다.

또한,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B호(1.5t, 레저보트, 승선원 3명)가 배터리가 방전돼 긴급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출항 전에 안전장비를 비롯한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훈 기자

휴대전화 흡진 70대 검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흡진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6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모(55)씨가 풍선간판을 설치하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흡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